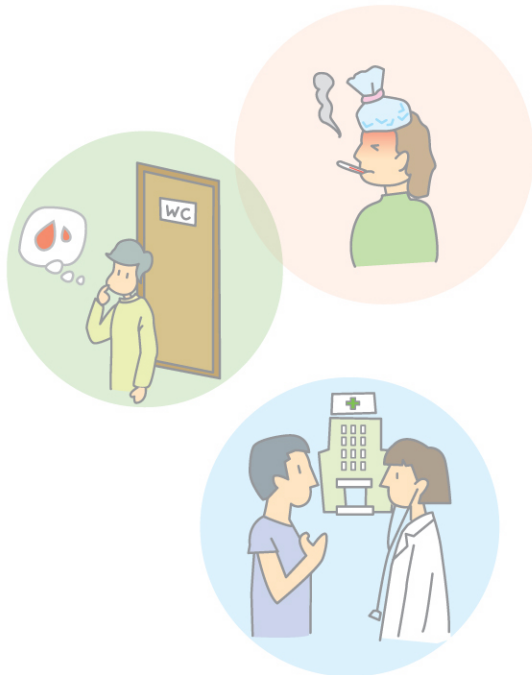


반드시

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

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, 또는 오한과 열이 동반될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



암선 의술 더 큰 사랑



서울아산병원 암센터

138-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
88, Olympic-ro 43-gil, Songpa-gu, Seoul 138-736, Korea
대표전화 : 1688-7575 홈페이지 : <http://cancer.amc.seoul.kr>

우리의 꿈은
당신의 건강입니다

항암화학요법

자가관리



서울아산병원 암센터

증상 설명

항암제에 따라 투여 후 배설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약물로 인한 방광 자극은 출혈을 생기게 하여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.

이런 약물을 투여할 때는 주사로 충분히 수액을 공급하거나 예방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. 출혈성 방광염이 발생한 경우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수 일 동안 치료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.

어떤 항암제는 출혈성 방광염과 상관없이 항암제 자체의 색깔 때문에 주사 후 1~2일간 소변이 붉은 색으로 나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

알아두어야 할 출혈성 방광염의 증상

- 소변을 참기 힘들며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으며, 잔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.
- 소변 볼 때 타는 듯한 느낌(작열감)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.
- 오한과 열이 나며,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



대처 방안

- 방광을 씻어내기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합니다.
- 항암제를 투여 받는 동안과 투여를 마친 후 물, 주스, 차 등 수분섭취를 많이 하여 소변을 자주 보도록 합니다.
- 방광에 자극을 주는 약물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소변을 보고 싶을 때는 즉시 화장실에, 잠자기 직전이나 중간에 일부러 소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